

장담그면서 훈훈한 마을공동체 만들어요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세대 통합 이화장 프로그램 '눈길'

이화경로당 어르신 20여 명 대상 이화장 양성 교육부터 체험까지 전문성 갖춘 장만들기 교육 실시 10월 23일 '종로 장류 축제' 참여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이화 경로당 어르신 20여명을 대상으로 장만들기 프로그램인 '이화장'을 실시하고 있다. 참여 어르신들은 마을공동체 기본교육, 이화장 양성교육, 체험활동 등을 통해 전통문화 홍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종로구 이화경로당 어르신들이 장 만드는 재미에 푹 빠졌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의 경로당활성화사업 특화프로그램 장이는 이화마을 '이화장'은 우리 고유의 장문화를 알리고 전통문화를 홍보하는 것은 물론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들은 그동안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종로&장금이 봉사단'의 고추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이에 보다 전문성을 갖춘 장 담그기 교육을 통해 1~3세대 통합을 이루고자 기획되었다"며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6월 2일 종로구청 등과 협약을 시작으로 이화 경로당 어르신 20여명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기본교육, 이화장 양성교육,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이들은 10월 23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실시되는 '제1회 종로 장류축제' 참여를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이러 박 사회복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전통 장 문화 알림이 활동을 통한 관광객 대상 전통문화 홍보, 지역밀착형 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 열린 경로당 환경 조성 등 지역사회 내 재능기부활동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박재성 사회복지사는 "이화경로당과 함께 전통 장 문화 알림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화동 지역 토박이인 이화경로당 어

리 세대들한테 더 익숙하다. 노인들이 잘 할 수 있는 장만들기를 통해 이웃과 나눔 기회가 생기니 이보다 더 보람되고 좋을 수 없다"며 나누는 기쁨을 이야기한다.

특히 어르신들은 이화장 교류활동으로 10월 23일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하는 '제1회 종로 장류 축제'에서 고추장 만들기 체험활동 부스를 운영해, 1~3세대 교류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화경로당 박복순(73) 어르신은 "10월 달 행사에 참여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 고구마 고추장 등 그동안 몰랐던 레시피도 알게 되었는데 이런 노하우를 시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처음 복지관에서 제안이 왔을 때는 노인들이 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 너무 재미있고 보람을 느낀다. 특히, 우리의 장만들기 경험을 젊은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기대가 크다"며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도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인근의 낙산성곽길, 이화벽화마을 등에 이화장 나눔활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화장은 지역의 젊은이들에게는 경로당에 대한 친근감을 심어주고 대학로를 찾는 젊은이들에게는 전통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소외이웃에게 전통장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sh@hyunbuil.com

떡만들기부터 선물나누기까지 추석맞이 복지관 행사 풍성

추석을 맞아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됐다. 송편만들기에서부터 선물나누기까지 다양하게 펼쳐진 교계 복지관 추석행사를 모아봤다.

사단법인 꿈이루는사람들은 9월 13일 이주여성 모자가족 25명을 초청 추석맞이 생필품 전달과 '짜장면 데이'를 열었다. 꿈이루는사람들 대표 진오 스팀은 "고향을 떠나 한국으로 시집은 이주여성과 2세 자녀들이 외롭고 쓸쓸한 한가위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다문화 모자가족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아이들과의 외식을 통해 정서적으로 충만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며 취지를 전했다.

강남구립역삼초등학교는 9월 19일 25명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떡만들기 체험'을 실시했다. 이들은 용인에 위치한 웰떡마을을 방문 송편, 꿀떡, 웰떡 만들기 체험을 하고,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용인농촌테마파크를 방문해 농경문화전시관과 농기구체험도 실시했다. 강남구립역삼초등학교는 "도시 환경에서 자연 친소년들이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혜숙 기자 bwjsh@hyunbuil.com

정혜숙 기자 bwjsh@hyunbuil.com

정혜숙 기자 bwjsh@hyunbuil.com



정혜숙 기자 bwjsh@hyunbuil.com

황송노인복지관 노인문화축제 개최

9월 23일 개막식...발표회 전시 등

황송노인종합복지관은 9월 23일 2015년 노인문화축제 '꽃피는 청춘, 그 길을 걷다'의 개막식을 가졌다. 올해로 4회를 맞는 노인문화축제는 어르신 발표회 및 관내 부대행사 등으로 꾸며지며 한 달간 실시된다.

이번 노인문화축제는 어르신이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과 함께 어울리는 다채로운 문화 나눔의 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꽃피는 청춘, 그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소품전시는 어르신들의 과거, 현재, 미래 등 3가지 테마로 나누어 실시된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기금마련의 일환으로 열리는 다채로운 및 황송노년 장터에서는 생필품, 의류, 먹거리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한다. (031)602-3653 정혜숙 기자

장애아티스트 11인의 '예술바라기' 전시

강남장애인복지관 10월 13일까지 인사동서

강남장애인복지관은 장애아티스트 11인의 '예술바라기' 전시를 10월 13일까지 인사동 씨지길 계단갤러리에서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강남장애인복지관이 발굴한 아티스트 11인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부터 선 드로잉, 추상화, 수묵화, 사진 등 총 50여 점의 다채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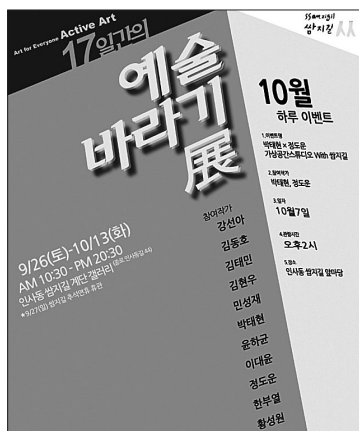
전시뿐만 아니라 씨지길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참여이벤트도 진행된다. 종이공예 아티스트 박태현과 뮤지션 타이포그래피 아티스트 정도운의 신나는 뮤지션 콜라보레이션을 10월 7일 오후 2시에 씨지길 앞마당에서 가상공간스튜디오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관객이 참여하는 장애아티스트

트 응원 메시지가 담긴 17일간 계단갤러리 내에서 진행된다. 아티스트에게 응원의 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아티스트 작품으로 제작된 아트상품을 제공한다.

강남장애인복지관은 "이번 전시는 장애아티스트의 독자적 예술세계를 한 장소에서 모두 감상할 수 있는 종합선물과 같다. 작품 속의 독특한 시각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한편, 강남장애인복지관은 문화예술특화복지관으로써 시각예술분야의 장애아티스트를 발굴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작가로 등단하기 위한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한부열, 박태현 작가의 개인전을 비롯하여 다수의 그룹전을 진행해



강남장애인복지관의 장애아티스트를 위한 '예술바라기전' 포스터

왔으며 올해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갤러리에서 '봄을 기다리는 봄' 전, 남서울대학교 아트센터 갤러리에서 '두 작가의 즐거움, 사람'전을 연 바 있다. (02)560-8241 정혜숙 기자

장애인 인권 활동가 양성 아카데미

이천시장애인복지관 10월 6일까지 교육생 모집

이천시장애인복지관(관장 희망)에서는 장애인권아카데미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지역사회 내 장애인 인권 활동가 양성을 위한 기본과정으로 10월 12일~11월 10일 매주 월, 화요일 총 10회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20명이다.

이천시장애인복지관 "교육과정은 '인권감수성 깨우치기'를 시작으로 장애인 권리협약의 주요내용을 회기별로 나누어 진행할 것이다. 더불어 9회 차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교육하며 폭넓은 인권에 대해 안내할 예정"

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또한 아카데미 이후 장애인 인권 활동가 양성 심화과정을 금년 중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심화과정까지 이수한 활동가를 조직해 이천시에서 장애인 인권 옹호를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권아카데미는 이천시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메일 또는 팩스로 발송하면 된다. 접수 기한은 10월 6일까지이다. (031)637-6720 정혜숙 기자

제64차 찾아가는 포교종책연찬회

광주·전남 포교의 중심, 교구본사의 역할과 과제

광주·전남 지역 환경과 포교현황을 파악하고 포교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포교네트워크 구축과 지역현실에 근거한 포교방안 도출을 위해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합니다. 광주·전남지역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주제: 광주·전남 포교의 중심, 교구본사의 역할과 과제
- 일시: 2559(2015)년 10월 7일(수), 오후 2시
- 장소: 광주 무각사(내 불교회관)
-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전법지원팀 02-2011-1892, think2me@naver.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

세부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세부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브리핑〉 호남 종교지형의 변화와 포교활성화를 위한 제언	고명석 (포교연구원 선임연구원)
〈발제 1〉 광주·전남 지역 현황 및 포교활성화를 위한 교구본사의 역할 광주·전남지역 불교(포교)환경 및 역량 진단 교구본사 중심으로 지역포교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방안	현진스님 (대흥사 포교국장)
〈발제 2〉 광주·전남 지역 포교과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지역 인적자원의 네트워크, 문화/힐링 콘텐츠 자원의 활용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불교의 역할	양행선 (광주불교연합회 사무국장)
〈중합토론〉 광주·전남 지역 현황 및 포교활성화를 위한 교구본사의 역할 광주·전남 지역 포교과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법일스님(신홍사 주지) 이재인(포교대안 광주지역 사무국장) 조영훈(중심사 사무장)